



3면

도-덴마크, 해상풍력으로 협력관계 돈독해지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자 만족도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음 1월 27일) 제27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道, 2년 연속 8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대장정'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열고 전북형 뉴딜·미래신산업 등 대상사업 1차 확정

전북도가 4차례에 걸쳐 2022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500여건, 8,000억원 상당을 발굴하고, 2년 연속 8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2년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I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02건에 8,091억원을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해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라능동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북도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많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남북도로 등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돼 이를 대체할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8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 실명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중기사업 심의 대응에 집중하면서,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해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합당한 지형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8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도 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해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9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김승수 전주시장의 안내로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는 선미촌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김 시장과 김 청장은 서노송예술촌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전한 서노송예술촌' 조성 협력

김승수 전주시장·김창룡 경찰청장 예술마을 탈바꿈 선미촌 정비 현장 점검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중인 전주 서노송예술촌을 찾아 완전한 예술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노송예술촌 내 성평등 전주에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과 김주원 완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정비 관련 현장 점검을 했다.

김창룡 청장의 이날 방문은 지난해 10월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서노송예술촌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취지였다. 김 시장과 김 청장은 불법의 온상이었던 공간을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만드는 서노송예술촌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물결서사(예술작품 전시관) ▲노송너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등 성매매업소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점진적으로 재생해왔다. 또 어두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가로수 식재 등을 진행했으며, 도로를 폭선회해 서행할 수 있도록 인도도를 설치해 보행안

전도 확보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85개에 이르렀던 성매매업소는 현재 7개소까지 줄었으며, 이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와 112 신고접수 현황도 점차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창룡 청장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관 주도의 전면적 개발방식이 아닌 점진적 기능전환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노송 예술촌 문화재생사업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시장은 "선미촌의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주민들과 문화예술가들의 협력, 여성인권이라는 관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선미촌 20 문화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찾고 싶은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교육청, 2024년까지 학교 석면 '제로화'

교육부 목표보다 3년 앞서... 이달 현재 80.9% 완료 전국 최초 민관협의회 구성 안전성·투명성 확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석면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목표로 제시한 '2027년 학교 무석면 달성' 계획에 비해 3년 가량 앞서는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율은 2014년 최초 조사 면적 대비 80.6%다.

학교의 경우 162만5,836㎡ 가운데 지난해까지 131만3,715㎡를 제거 완료해 80.9%, 기관은 3만8,565㎡중 2만7,674㎡를 완료하면서 71.8%의 제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해 164억4,400여만 원, 2022년·2023년 173억2,800여만 원, 2024년 23억

1100여만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학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및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대 등도 참여해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연초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 운영 지원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에 따른 민원 대응 및 홍보활동 ▲학교 석

면 해체·제거공사 결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모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통해 석면 비산 정도 및 농도 측정 용역공사와 분리 발주, 현장 감리인 배치 영역 확대, 석면모니터링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활성화, 집기이전·현장 청소비·비계설치비 등 공사비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연중 4차례 정기회의와 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학교는 2024년, 기관은 건물 노후화 등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제외하면 2022년까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면서 "석면제거 작업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 내부개발·투자유치 가속화 힘 모아달라"

행정부지사, 새만금 현장행정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다. 최훈 부지사는 먼저, SK 컨소시엄,

(주)GS글로벌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전의 새만금 전력계통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배수갑

문 운영현황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선식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신항만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부지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새만금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